

夜間大學과 야간講座學科의 位相

—주경야독 정신의 표류—

李 相 日
(成均館大 獨語獨文學科)

야간대학과 야간강좌학과의 학제 속에는 晝耕夜讀의 精神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직장과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場이 되지 못한 채 주간대학의 교육이 확대된 全日授業制의 야간강좌일 따름이고 입시 작전의 한 便法으로 이용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면, 굳이 주경야독 정신이라는 공염불을 뇌일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1. 自己 成長의 이니시에이션

으스름 달빛이 어린 교정을 가로등 불빛 아래 걷는 야간 강좌 학과 학생들의 이념과 정열은 어떤 빛깔일까?

晝耕夜讀의 부지런함과 끈질긴 집념이 마침내 螢雪之功을 이루어 학사가 되고 碩士가 되고 박사가 되어 사회로 환원되는 知的 寄與는 반드시 그들 개인의 자기 실현일 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와 민족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의 실현이기도 하다. 시련을 이겨 나가는 이니시에이션(入社式)이 결여된 우리 사회에 야간 강좌 개설 학과 학생들의 주경야독 정신은 자기 성장의 한 좌표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순탄하게 좋은 환경에서 修學을

해 나가는 이 땅의 대학생들 가운데서 그래도 일종의 역경에 도전하는 야간 강좌 학생들에게 거는 나의 기대는 ‘논단’의 논리로 전개될 수가 없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나는 이 글을 잇고 싶다.

2. 夜間大學과 夜間講座學科

夜氣에 익숙한 학생들이 낮의 근무처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시대는 사라져 가는 것 같다. 일찌기 ‘야간대학’으로 불려져 주경야독하는 직장인들의 배움의 터였던 ‘야간강좌 개설학과’라는 긴 이름의 제도적 장치는 정상적인 정규 대학을 1부라 부를라치면 2부에 해당된다 하여 ‘2부대학’이라 불려지기도 했다.

이름은 불려지기 나름이다. 꽃은 비로소 시인에 의하여 불려짐으로써 그 존재가 확인해진다.

2부대학이건 야간대학이건간에 주경야독의 정신은 따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야간강좌 개설 학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주경야독의 정신은 표류하기 시작한다.

지금은 야간강좌 개설 학과 소속 학생들 스스로 자기들을 야간대학 학생으로 자처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강좌가 야간에 개설되어 있을 뿐, 그런 의미에서 야간강좌 개설 학과 학생일 뿐 지난 날의 야간대학과 지금의 야간강좌 개설 학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야간강좌 개설 학과에 속하는 학생들 가운데 지난 날의 야간대학 소속 학생처럼 직장을 가진, 그래서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극히 적다. 지금 1학년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직장을 가진 학생은 거의 없다. 고학년이 되면 그 비율이 늘어 가지만 그만큼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고전적 기능, 즉 어려운 환경에서 낮이면 직장에 근무하고 퇴근 뒤 대학 강단을 찾는 근면의 표상이었던 주경야독 정신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1989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르면 급격하게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폐과나 개편이 각 대학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참고로 전국의 전·후기 야간강좌 개설 학과 모집 정원을 보면 전기대 27개 대학(그 가운데 후기 분할 모집 9개 대학), 후기대 16개 대학에 약 1만 2천 명이 수학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야간강좌 개설 학과는 역사적으로 사회과학 계열, 곧 법학과라든지 행정학과 그리고 경제·경영·무역학과 등이 강세를 유지해 왔으나 1981년 졸업정원 증원과 함께 야간·2부대학에서 야간강좌 개설 학과로 개칭이 이루어지면서 자연과학계가 늘어났으며 순수 인문계로서는 영어영문학과가 파벌 존립 수위를 이루고 있다. 금년 들어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전반적인 통·폐합과 개편에 따라 中央大의 영문학과, 仁荷大 일문학과 처럼 1학과 존속만으로 야간대학이 연명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물론 그럴 경우 분명히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존속이기 때문에 야간대학은 소멸된 셈이다).

서울 지역만을 따로 분류하면 야간강좌 개설 학과 모집 정원은 전기대(후기 분할 모집 포함)에서 ① 인문계 648명, ② 사회계 2,181명, ③ 자연계 580명의 비율이지만 지방대학과 후기대학 등의 인문·사회·자연계 비율은 반드시 일정한 배분율이 적용된 것같지 않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펴낸 "89 전국 대학 수험 자료집"(월간 「수험생활」 11월호 부록)에 의하면 야간 학과라는 이름의 야간강좌 개설 학과별 통계는 49학과 42개 대학이고 거의 1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그 제도에 따라 4년간 기술과 학문 체계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면 그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결코 '강 건너 불 보기' 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표 1〉 참조).

〈표 1〉 대학별 야간 강좌
〈전기대〉

대학명	계열	학 과	'89 입학 정원	'89 특별 전형
서울시립대	인문	행정학과	30	
		경영학과	40	
		무역학과	30	
	자연	건축공학과	30	
전국	인문	영어영문학과	40	
		정치외교학과	30	
		행정학과	30	
		경제학과	30	
		경영학과	50	
경희대	인문	무역학과	30	
		경제학과	40/30	
		경영학과	40/30	
국립대	인문	무역학과	35/25	
		영어영문학과	24/16	
단국대	인문	영어영문학과	24/16	
		행정학과	40	
		경제학과	40	

대학명	계열	학 과	'89 입학 정원	'89 특별 전형
단 국 대	인문	무 역 학 과	40	
		경 영 학 과	40	
		회 계 학 과	40	
대	자연	진 기 공 학 과	40	
		화 학 공 학 과	40	
동 국 대	인문	영 어 영 문 학 과	50	
		경 제 학 과	40	
		무 역 학 과	55	
		경 영 학 과	55	
	대	자연	전 자 계 산 학 과	60
산 업 공 학 과			60	
동국대 경주	인문	법 학 과	40	
		경 영 학 과	40	
성 균 관 대	인문	영 어 영 문 학 과	18/12	
		불 어 불 문 학 과	18/12	
		중 어 중 문 학 과	18/12	
		독 어 독 문 학 과	18/12	
		법 학 과	24/16	
		행 정 학 과	12/ 8	
		경 영 학 과	18/12	
회 계 학 과	18/12			
세 종 대	인문	영 어 영 문 학 과	40	
		경 제 학 과	40	
		무 역 학 과	40	
		경 영 학 과	60	
		회 계 학 과	40	
인하대	인문	일 어 일 문 학 과	40	
승 실 대	인문	법 학 과	34	
		경 제 학 과	15/10	
		경 영 학 과	40/28	
		무 역 학 과	20/14	

대학명	계열	학 과	'89 입학 정원	'89 특별 전형
승 실 대	자연	화 학 공 학 과	20/20	
		전 자 공 학 과	40/30	
		전 기 공 학 과	20/20	
		기 계 공 학 과	20/20	
		전 자 계 산 학 과	50/30	
중앙대	인문	영 어 영 문 학 과	33	
계 주 대	인문	법 학 과	20	4
		행 정 학 과	20	4
		경 영 학 과	20	4
		회 계 학 과	20	4
경 남 대	인문	경 제 학 과	50	10
		경 영 학 과	60	12
		무 역 학 과	60	12
		회 계 학 과	60	12
		법 학 과	40	8
남 대	자연	행 정 학 과	40	8
		기 계 공 학 과	70	14
		전 기 공 학 과	50	10
		전 자 공 학 과	50	10
		전 자 계 산 학 과	50	10
		산 업 공 학 과	50	10
계 명 대	인문	영 어 영 문 학 과	32/ 8	
		일 본 학 과	32/ 8	
		경 영 학 과	64/16	
		회 계 학 과	32/ 8	
		경 제 학 과	32/ 8	
		무 역 학 과	64/16	
계 명 대	자연	수 학 과	32/ 8	
		통 제 학 과	32/ 8	
		건 축 공 학 과	32/ 8	
		전 자 계 산 학 과	32/ 8	
		산 업 공 학 과	32/ 8	

대학명	계열	학 과	'89 입학 정원	'89 특별 전형
동 아 대	인문	국 어 국 문 학 과	40	
		영 어 영 문 학 과	40	
		일 어 일 문 학 과	40	
		법 학 과	40	
		정 치 외 교 학 과	30	
		경 제 학 과	40	
		행 정 학 과	40	
		경 영 학 과	40	
		관 광 경 영 학 과	40	
		무 역 학 과	50	
회 계 학 과	40			
경 성 대	인문	국 어 국 문 학 과	30	6
		영 어 영 문 학 과	30	6
		법 학 과	24/16	6
		행 정 학 과	30	6
		무 역 학 과	30	6
		경 영 학 과	30	6
자연	전 산 등 제 학 과	40	8	
	회 계 학 과	30	6	
영 남 대	인문	국 어 국 문 학 과	40	
		영 어 영 문 학 과	56/24	
		공 법 학 과	20	
		사 법 학 과	20	
		행 정 학 과	40	
		정 치 외 교 학 과	30	
		경 제 학 과	35/15	
		경 영 학 과	70/30	
	무 역 학 과	70/30		
	자연	토 목 공 학 과	35/15	
건 축 공 학 과		35/15		
기 계 공 학 과		35/15		
전 기 공 학 과		28/12		

대학명	계열	학 과	'89 입학 정원	'89 특별 전형
영남대	자연	전 자 공 학 과	35/15	
		가 정 관 리 학 과	28/12	
원 광 대	인문	국 어 국 문 학 과	40	8
		영 어 영 문 학 과	40	8
		행 정 학 과	40	8
		경 영 학 과	40	8
		무 역 학 과	40	8
	자연	건 축 공 학 과	50	10
		토 목 공 학 과	50	10
		전 기 공 학 과	50	10
		전 자 공 학 과	50	10
		전 자 계 산 공 학 과	40	8
울 산 대	인문	경 영 학 과	50	10
	자연	기 계 공 학 과	50	10
		조 선 및 해 양 공 학 과	50	10
		전 기 공 학 과	60	12
건 축 학 과		40	8	
조 선 대	인문	법 학 과	24/ 6	6
		경 제 학 과	24/ 6	6
		경 영 학 과	64/16	16
		무 역 학 과	48/12	12
	자연	회 계 학 과	48/12	12
		토 목 공 학 과	32/ 8	8
청 주 대	인문	건 축 공 학 과	32/ 8	8
		기 계 공 학 과	56/14	14
		기 계 설 계 공 학 과	32/ 8	8
		정 밀 기 계 공 학 과	32/ 8	8
		전 기 공 학 과	48/12	12
		전 자 공 학 과	64/16	13
청 주 대	인문	국 어 국 문 학 과	35	4
		영 어 영 문 학 과	35	4
		경 영 학 과	40	4

대학명	계열	학 과	'89 입학 정원	'89 특별 전형
청 주 대	인문	무 역 학 과	40	4
		법 학 과	40	4
		행 정 학 과	40	4
한 남 대	인문	영 어 영 문 학 과	40	50 (14.7 %)
		사 학 과	40	
		경 영 학 과	50	
		회 계 학 과	40	
		무 역 학 과	40	
		행 정 학 과	40	
		자연	전 자 계 산 공 학 과	
	산 업 공 학 과		40	
	국 제 대	인문	국 어 국 문 학 과	60
영 어 영 문 학 과			60	
일 어 일 문 학 과			60	
법 학 과			60	
행 정 학 과			60	
경 제 학 과			60	
경 영 학 과			60	
무 역 학 과			60	
전 산 통 계 학 과			80	
회 계 학 과			60	
금 오 공 대	자연	기 계 공 학 과	60	9
		전 자 공 학 과	60	9
		산 업 공 학 과	50	7
		고 분 자 공 학 과	30	4
		전 자 계 산 기 공 학 과	50	7
대 구의 대의대	인문	한 문 학 과	40	8
	자연	보 건 경 제 학 과	40	8

<후기대 전기 분할 모집>

대학명	계열	학 과	'89 입학 정원	'89 특별 전형
경 기 대	인문	국 어 국 문 학 과	10/40	
		영 어 영 문 학 과	10/40	
		법 학 과	8/32	
		행 정 학 과	9/36	
		경 영 학 과	16/64	
		무 역 학 과	12/48	
		회 계 학 과	10/40	
		경 제 학 과	10/40	
	자연	관 광 경 영 학 과	8/32	
		토 목 공 학 과	8/32	
		건 축 공 학 과	8/32	

<전기대 후기 분할 모집>

- 경희대
<인문> 경제학과 30 경영학과 30 무역학과 25
- 국민대
<인문> 영어영문학과 16 행정학과 16
- 성균관대
<인문> 영어영문학과 12 불어불문학과 12 중어중문학과 12 독어독문학과 12 법학과 16 행정학과 8 경영학과 12 회계학과 12
- 숭실대
<인문> 경제학과 10 경영학과 28 무역학과 14
<자연> 화학공학과 20 전자공학과 30 전기공학과 20 기계공학과 20 전자계산학과 30
- 경성대
<인문> 법학과 16
- 계명대
<인문> 영어영문학과 8 일본학과 8 경영학과 16 회계학과 8 경제학과 8 무역학과 16
<자연> 수학과 8 통계학과 8 건축공학과 8 전자계산학과 8 산업공학과 8
- 조선대
<인문> 법학과 6 경제학과 6 경영학과 16 무역학과 12 회계학과 12
<자연> 토목공학과 8 건축공학과 8 기계공학과 14 기계설계공학과 8 정밀기계공학과 8 전기공학과 12 전자공학과 16

· 영남대

<인문> 영어영문학과 24 경제학과 15 경영학과 30 무역학과 30

<자연> 토목공학과 15 건축공학과 15 기계공학과 15 전기공학과 12 전자공학과 15 가정관리학과 12

· 동의대

<인문> 법학과 30 행정학과 30 경영학과 40

<자연> 전산통계학과 50

<후기대>

· 광운대

<인문> 경영학과 59(10)

· 덕성여대

<인문>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40 경영학과 40 회계학과 40

· 상명여대

<인문> 경영학과 40(8)

· 한성대

<인문> 국어국문학과 20 영어영문학과 20 경영학과 40 무역학과 40

· 경기대

<인문> 국어국문학과 40 영어영문학과 40 법학과 32 행정학과 36 경영학과 64 무역학과 48 회계학과 40 경제학과 40 관광경영학과 32

<자연> 토목공학과 32 건축공학과 32

· 경원대

<인문> 영어영문학과 40 경영학과 40 무역학과 40

<자연> 전자계산학과 30

· 인천대

<인문> 경영학과 50(10) 무역학과 50(10)

<자연> 전자공학과 30(6) 기계공학과 30(6) 산업공학과 40(8) 전자계산학과 50(10)

· 관동대

<인문> 국어국문학과 40(8) 경영학과 50(10) 무역학과 50(10) 행정학과 60(12)

<자연> 정보처리학과 40(8)

· 상지대

<인문> 행정학과 40 경영학과 40 무역학과 40

· 대건대

<인문> 영어영문학과 30(6) 법학과 30(6) 경영학과 30(6) 행정학과 20(4)

<자연> 전자계산학과 30(6) 건축공학과 30(6) 토목공학과 30(6)

· 호서대

<인문> 행정학과 40(8)

<자연> 전자계산학과 40(8)

· 전주대

<인문> 법학과 40 경영학과 100(20) 무역학과 60(12) 회계학과 60(12) 통계학과 40(8)

<자연> 전자계산학과 40(8)

· 전주우석대

<인문> 국어국문학과 40(8) 영어영문학과 40(8) 행정학과 40(8) 경영학과 40(8)

· 호남대

<인문> 법학과 40(8) 행정학과 40(8) 경영학과 40(8)

<자연> 전산통계학과 80(16)

· 대구대

<인문> 영어영문학과 40 법학 60 행정학과 60 무역학과 60(12) 경영학과 60(12) 회계학과 60(12) 사회복지학과 50(10) 산업복지학과 40(8) 지역사회개발과 40(8) 도서관학과 40(8) 국어교육과 30(6) 영어교육학과 30(6) 특수교육학과 60

· 부산외대

<인문> 영어과 50(5) 독일어과 50(5) 일본어과 40(4) 불어과 40(4) 국문학과 50(5)

<자연> 전산학과 40(4)

※ ()안은 산업체 특별 전형 인원임.

('89 전국 대학 수험 자료집에서)

3. 便宜의 方便인 夜間講座

야간강좌 개설 학과 학생들이 야간강좌라는 이름에 위화감과 자격지심을 느껴 주간과 야간의 구별 철폐를 요구한 지는 꽤 오래되었다. 그것도 직장인 학생이 많고 아르바이트 학생이 많은 3,4 학년보다 1,2 학년의 절대 다수가 주·야간 통·폐합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야간강좌 개설 학과는 강좌가 야간에 개설된 것일 뿐 주간 학생과 야간 학생이 신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동시에 '全日授業制'를 통해 주간 학생들도 야간강좌를 들을 수가 있고 야간 학생들도 얼마든지 주간 강좌를 듣게 되어 있는데 학번이 야간강좌 개설 학과 소속으로 구별이 나거나 각종 증명서에 주·야간 교무처장 도장이 달라 사회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다.

지난 날 야간대학 소속 학생들은 당연히 야간

강의를 받는 것이 순리였는데 지금 야간강좌 개설 학과 학생들은 3과목 9학점 주·야간 교류 학점을 마다하고 전 학점을 주간에서 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까지 받고 있다. 학번도 주·야간 구별없이 고루 혼합하도록 시위를 통해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으며 마침내 대학 입시 요강에도 주·야간 구별 없이 통·폐합을 통해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특징, 즉 주경야독 정신의 실제적 구현은 오직 전일 수업제를 전던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제 주·야간의 모든 학생들은 저마다 사정에 따라 낮 강의를 받거나 밤 강의를 듣게 됨으로써 대학의 기능적 제도가 편의의 방편이 되어 버렸다는 일부의 편견마저 감수해야 할 지경이 된 것이다.

왜 야간대학으로 간주되는 야간강좌 개설 학과 소속 학생들 스스로가 '야간'이라는 표현에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학 입학 때 스스로 선택해서 히가된 야간강좌 개설 학과 소속을 스스로 부인하려 드는가?

입시 때 약간 떨어지는 커트라인 차이를 눈여겨 보고 입시 작전상 욕심을 낮추어 주간의 법과나 경영과 대신에 야간의 법과나 경영과를 지망한다는 사실은 닷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야간강좌 개설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입학이 허가된 다음 입학 요강에 명시된 전제를 무시하고 주·야간 구별을 없애려는 자세는 자기모순적이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대학 당국에 요구하는 제도적 모순의 개선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당해 연도부터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하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개선 노력이 시위 투쟁으로 확산되면 개선의 혜택이 재학생에게 직접 배분여지기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 실제적 상황이다.

그것을 나는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자기모순이라 한다. 처음부터 그들은 입시 요강에 명시된 '계약'에 따라 입학이 허용된 것이다. 제도의 모순점을 물리력으로 시인시켜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야간강좌 개설 학과생들의 집단 행동은 도시 주경야독의 정신답지 않다. 그만큼 야간강좌 개설 학과와 주경야독 정신은 일치되지 않는다.

주경야독 정신은 야간대학이라는 학제 속에 살아 있다. 그러나 야간강좌 개설 학과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려는 직장 산업체 근무자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장이 되지 못한 채 대학의 정상 교육이 확대된 '전일 수업제'의 야간강좌일 따름이고 입시 작전의 한 편법으로 선택된 학과이고 보면 굳이 주경야독 정신이라는 공염불은 너일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바로 말하면 야간강좌 개설 학과는 야간대학이 아니다. 주경야독을 들먹일 까닭도 없다. 바로 주·야간의 편리한 교류 강좌 개설이기 때문에 주경야독보다 일종의 사회교육 제도로서의 '전일교육' 그리고 보다 좁게 규정시키면 '평생교육'의 일환인 것이다. 우리 이웃인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가 선용처럼 보다 한가한 저녁 시간과 밤 시간에 그들의 취미나 전공을 넓히고 깊게 하는 교육 제도로 족하다.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학생 단체가 각 대학의 야간강좌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수합하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

"(전략) 시설 분리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못받고 국한된 주간 수업으로는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는 것과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속에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을 근거로 주간 교육 시설을 야간에도 최대한 활용하여 주경야독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부대학이 신설되었다. (중략) '80년...그 당시 사회 문제화되고 있던 과열 입시 문제의 미봉책으로 졸업정원제, 2부대학의 야간강좌 개설 학과로의 전환 등을 내세워 대학 정원은 60% 이상 늘어났다. 이 속에서 2부대학은 명목상 전일제 수업을 바탕으로 주·야 구별 없는 야간강좌 개설 학과로 변화한다. 그러나 실제상으로는 전일제 수업은 의던된 채 2부대학은 야간강좌로 이름만 바뀌어 2부대학도 아니고 전일제 수업에 따른 야간강좌도 아닌 기형적 형태로 지금까지 왔다(후략)."

주·야간 통·폐합과 전일 수업제를 내세우는 야간강좌 개설 학과 학생들이 보는 야간강좌의 역사 약술에 비치듯이 인재의 확보,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 시설의 활용 등이 거론되는 야간대학(2부대학)의 설립 취지는 분명히 주경야독 정신이다. 야간학과에 대한 '89년 대학 진로 가이드에도 "야간학과의 원칙적인 설립 목적은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격변하는 기술과 학문 체계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산학협동의 체제에서 기술 경쟁력을 고양시키고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

는 산업 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살아 있다.

4. 入試制度의 祭物

그러나 실제로 야간강좌 개설 학과는 증가되어 가는 대학 진학 희망자, 곧 고교 졸업생들과 대학 입시 제도 사이의 모순과 갈등에서 그 존재 이유가 변질되어 간다. 늘어나는 고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대학 진학 희망자들이 모두 대학에 수용되지 못하므로 사회 문제가 된 재수생 문제와 과열 과의 현상은 대학 구조의 조그마한 취약점도 허술하게 보아 넘기지 않는다. 일찍이 야간대학으로서 경제적 부담으로 진학을 포기한 인재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주간 교육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며 산학협동의 체제에서 기술과 학문 체제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려던 2부대학 시스템은 입시 경쟁의 와중에서 주경야독 정신보다 대학 관문을 통과하는 하나의 길목으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대학의 정원제라는 문교 정책에 따라 그렇잖아도 대학 진학 희망자 숫자에 비하여 엄청나게 좁게 책정된 정원 숫자는 수험생과 함께 입시 경쟁을 치루어야 하는 고교, 학원, 부모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취약한 대학 구조의 일각을 공략하게 하고 마침내 그 전략은 일찍이 주경야독하는 직장 학생들의 등용문이었던 야간(2부)대학의 학과들마저 넘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경쟁 상태에서 주경야독하는 직장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진학하면서 야간대학을 공략하는 이른바 ‘현역’들에게 커트라인에서 밀리게 마련이다. 그 결과 1970년대말 과열 과외와 재수생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등장했을 때 이미 야간대학 학생들의 반 수 이상이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으로 밀리기 싫은 ‘현역’들로 충원되고 그만큼 야간대학의 존립 이유였으며 그 기능이었던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학 진학을 유보했던 유능한 인재에게의 교육 기회 제공’이 유명무실해졌던 것이다.

그 무렵 서울 시내의 몇 여자대학 야간부에 입학한 내 처조카의 사연에 대해서 도무지 무지했던 나의 일방적인 편견은 대학에 몸담고 있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야간대학의 기능 변질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던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녀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입시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야간대학의 학과를 선택했고 거기에서 오는 야간대학 콤플렉스는 야간대학의 질적 차원으로 비하되어 야간대학 재학이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콤플렉스가 되어 주경야독 정신에 의한 야간대학 재학이라는 직장 학생들의 떳떳한 긍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런 재학생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반비례해서 직장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야간대학은 당초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 ‘야간강좌 개설 학과’는 ‘야간대학’이 아니라 단지 야간에 개설된 학과일 뿐, 따라서 학생들은 주·야간으로 구별되어 모집되었다 하더라도 각자 사정에 따라 주간강좌를 듣거나 야간강좌를 듣거나 자유롭게 학점 교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표면화된다. 주·야간 소속 학생이면 3강좌 9학점 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고 있던 주·야간대학 교류 학칙도 그렇게 해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문교 당국의 결정적 실수는 바로 야간강좌 개설 학과와 주간 학과를 통·폐합시켜 주지 못한 점이다. 학칙이나 입학 요강, 문교부 시행령에 의해 주·야간 학과 구별은 뚜렷하고 학생 정원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학점 교류가 가능하다 해도 ‘행정적으로’ 학적 관리나 성적 관리는 입학 초기부터 독립된 기구, 곧 야간대학이나 야간강좌 개설 학과 교학처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단과대학 형식으로 야간대학이 소속 학생 관리를 해야 하고 단과대학 형식이 지나치게 주·야간의 차별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야간처(2부처) 형식의 행정 기구로 야간대학이 바뀌었다 해도 이미 입학 당시에 야간대학 소속 정원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달리 주간대학 학생으로 학적이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학점의 교류 이수가 가능하고 야간대학 입학이 일종의 변형된 주간대학 입학 형식임을 감안한 문교 정책이었으면 주·야간 통합 입시로 정원을 조정하고 야간대학은 야간대학으로서 그 존립 이유를 기능적으로 수행하게

꿈 제도적인 주경야독 시스템을 완성시켜 놓았어야 했던 것이다.

대학 정원 조정은 1980년 10월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야간대학은 질적 제도 수정없이 주·야간 구분만이 폐지된 것이다. 그해 10월 2일자 문교부 대학교육국장 명의의 '1981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결과 통보문'은 다음과 같다.

가. 1981년도부터 대학 입학 정원제가 '졸업정원제'로 전환·조치됨에 따라 각 대학의 '84학년도 졸업정원은 '83학년도 졸업정원('80학년도 입학정원)과 '84학년도 졸업정원 순증 인원을 합한 인원 수임을 감안하여 학사 운영을 할 것.

나. 정부의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의 해소 방안에 일환으로 졸업정원의 대폭 증원과 함께 '81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인원은 졸업정원에 33%를 더 입학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학생 수용에 있어서 기존 교육 시설과 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일 수업제'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다. 전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81학년도 입학자부터 현 정원령상의 '주·야간 구분은 폐지'하니 산업체 근무자 등 취업자의 취학 기회 부여를 신중히 고려하고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에 물의가 없도록 조치할 것.

라. 현 대학 정원령상의 '학과별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으로 계열 정원화'할 계획이니 당해 계열의 전공 학과별 최소 졸업정원 및 학생모집 등 학사 운영은 학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특히 모집 계열과 졸업정원상의 계열간에 계열 조정(단과대학 안의 통합 또는 세분화에 한함)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10월 14일까지) 제출하기 바람."

5. 잘못 수용된 全日授業制

내가 성균관대학교의 '야간강좌 개설 학과 교학처장'이라는 긴 이름을 지닌 보직을 맡기까지 나에게 있어서 야간대학 정신은 입지전적 주경야독이었고 형설지공이라는 고전적 낭만주의로 그려진, 그런忍苦의 학업과정 이상이 아니었다.

야간대학 시스템이 언제 야간강좌 개설 학과라는 조직으로 바뀌었으며 어쩌하여 야간대학의 책임자가 학장이 아니고 교학처장이라는 행정적으로 한정되었는지도 나는 잘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스위스에 유학했을 무렵 그곳 대학들이 지역

사회의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해 직장인들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9시 이전의 무렵 강좌가 개설되어 있음과 또 동시에 5시 이후 늦게까지 야간강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른바 '전일제 수업' 또는 '전일 수업제' 제도가 누구라도 쉽게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제법 긴 시간(학기)을 거치면서 취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직장을 가진 학생 신분의 시민들은 자기 처지에 따라 이른 아침이나 퇴근 후 시간에 맞추어 한 학기에 한 강좌 내지는 세 강좌 정도의 교양 과목이나 전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런 전일 수업제에 의한 혜택은 우리나라처럼 한 학기 몇 학점 이수라는 커리큘럼 규정과 과목 수 등록금 납부가 아니라 학기당 일정 등록금 납부 제도 아래서는 그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야간강좌 교학처 책임을 맡기 전까지 주·야간 학생들이 주간에서 못따는 학점을 야간강좌에서 취득하고 야간에서 따기 힘든 경우 주간 강의 시간에 맞추어 취득하는 학점 제도조차 넓은 의미의 전일 수업제로 간주하는 입장이었다.

무의미하거나 낭비적인 주간강좌 개설과 똑같은 야간강좌 개설이라는 우리나라 야간강좌 개설 학과(야간대학)의 이중적 강의 개설은 원래 주간에 나올 수 없는 직장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간대학에 나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대학생들이 단지 야간강좌 개설 학과 소속 학생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을 위한 강의 시간표를 주간과 똑같이 개설해 놓고 기어 이 그들을 야간 시간에 나오라거나 주간에 사정이 있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직장 학생들의 주경야독을 위해 그들이 학점따기 어렵게 '모든 전을 다 벌여 놓고' 그것을 일러 전일 수업제라고 호도하는 대학교육 제도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해방 이후 야간대학으로 발족한 건국대 야간부와 성균관대 야간부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불우해서 직장을 가져야 하는 직장인들이 불타는 향학열로 대학 강의에 도전하는 불굴의 의지를 담은 교육장이었다. 그야말로 낮에 일하고 밤에

배우는 주경야독의 정신은 불우한 환경을 극복해서 업적을 내는 형설지공을 실천 목표로 삼기 때문에 가난이 서러움은 되지만 부끄러움일 수 없고 따라서 야간대학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이 의지력의 과시일 수는 있어도 숨겨야 할 자폐증 증후일 수는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나에게서는 내가 가르치는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에 대한 주·야간 구별이 있을 수 없었고 오히려 야간강좌 개설 학과에 속하는 야간 독문과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그들의 주경야독하는 정신에 비추어 더 높았다고 할 수도 있다. 대학 안에서 야간대학이 주경야독하는 자세를 떨치고 교육 제도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야간대학 학생 정원 증가와 직장 학생들의 수적 감소, 그리고 이른바 '현역'의 수적 증가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야간대학 학생 수가 많아지고 그 많은 학생 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장인이 아닌 일반 학생으로 채워지는 현상과 함께 그들은 야간대학생으로 처우되기보다 주·야간 구별 없는 '그냥' 대학생으로 처우되기보다 주·야간 구별 없는 '그냥' 대학생으로 처우되기보다 주·야간 구별 없는 '그냥' 대학생으로 졸업장이나 제반 증명서에 '야간대학'이라는 별칭을 없애기 위해서 야간대학 제도를 폐지하고 단순히 야간에 개설된 강좌를 듣는 야간강좌 개설 학과 학생으로 처신하게 된 것은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80년대였다.

야간대학이 야간강좌 개설 학과라는 이름으로 변신하게 된 대학교육 '내적' 사정은 그러하였다. 오는 주·야간 구별이 일종의 수모라는 것이다. 야간대학 학생으로 낙착되는 것이 직장 때문이라는 객관적 상황 탓이라면 야간대학 소속이거나 야간강좌 개설 학과 소속이거나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대학 입학이라는 고교 졸업생들과 그들 부모의 초미의 과제가 직장 근무와 관련도 없는 '야간대학에라도!'로 방향 전환을 도도했을 때 대학교육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 차렸어야 했던 것이다.

야간대학의 증가와 야간대학 학생 증원이 단순히 늘어나는 재수생 흡수 대책의 손쉬운 착상과 결부되면서 야간강좌 개설 학과 대학생들은 일반(주간) 대학생의 일종의 분파처럼 처우됨으로써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야간대학 기능의 변질

내지는 무능이 심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야간대학이 그 원래의 기능, 곧 주경야독하는 의무적인 직장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라는 울타리를 허물고 일반 학생들이 대학 입학의 한 편법으로 야간대학 학과들을 선택하게끔 되었으면 이미 그제 야간대학으로 물리는 일반 학생들의 수요는 마땅히 주간으로 돌려져야 했던 것이다.

주간·일반대학 정원은 묶여 있고 대학 입학은 입시 지옥을 통해 더 치열해지면서 그 많은 지원자들은 커트라인이 조금이라도 낮은 대학과 학과를 찾았다. 물 줄기는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지방대학으로 가기보다, 전문대학으로 가기보다 야간대학이라는 불리한 수학 조건도 감수하겠다는 입시생들 자신과 그 부모들의 치열한 열망을 조정하고 물꼬를 잡아주지 못한 문교 당국은 결코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6. 夜間講座 消滅과 夜間大學 還元

6·25 피난 시절 전시 체제 아래 비상 야간 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제도적인 근거를 갖기 시작한 야간대학, 2부대학, 야간강좌 개설 학과는 그 원리 취지가 주간 교육 시설의 활용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늘려 전문 인력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 향학열에 불타는 직장인들의 주경야독 정신이 야간대학의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서 야간대학도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결과 직장을 가진 주경야독하는 대학 진학 희망자들이 고교를 졸업하고 순차적으로 고등교육 과정으로 진입해 올라오는 대입 진학자들에게 성적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이 대학 지망생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인 이상 그 수용의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야간대학의 취지가 변질되는 데로 내버려 둔 문교 행정 당국이 졸업정원제라는 이름으로 30%의 대학 지망생들을 더 뽑아서 차고 넘치는 대학 지망생의 체증을 해소하고 학교 당국의 재무 구조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은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졸업정원제의 이상이 허물어지고 그 제도가 백지화된 현금의 교

육 정책 변화 과정에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가장 큰 질문이 앞서 내세운 '81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결과 통보문'의 나항과 다항에 대한 것이다.

졸업 정원이 대폭 증원되고 입학 인원이 졸업 정원의 30% 한도로 더 입학할 수 있게 해주었으므로 '전일 수업제'를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定員상위의 주·야간 구분은 폐지된다고 한 문교당국의 통보문은 제6공화국에 들어와 졸업정원제의 30% 증가 입학 원칙이 해소됨으로써 어쩌면 1980년 문교부 지침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전일 수업제 실시의 무효화 조치 및 주·야간 구분 폐지의 무효화 조치가 이루어질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물음인 것이다. 졸업 정원이 증원되고 그 정원의 30%를 더 뽑게 조치한 통보의 근거인 30% 증원 모집이 취소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그 전제 조항이었던 전일 수업제와 주·야간 구별 폐지 자체도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야간학과 소속 학생들이 주·야간 통·폐합을 주장함으로써 야간강좌 설치의 기본을 단순히 주·야간 학생의 편의를 위한 전일 수업제에다 돌리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주경야독의 정신과 위배된다. 주경야독 정신은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작태는 아닌 것이다. 그만큼 야간강좌 개설 학과가 주·야간의 차별만이 아니라 구별마저도 없애려는 일반 학생들로 9할 이상 점유당한 상태에서 몇 % 되지 않는 소수의 직장 근무 학생들이 주경야독의 정신을 주장하기에 이른 사태는 '정통파'로서의 자기 주장일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야간 통·폐합은 조만간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소멸과 해소를 초래하게 되고 입시의 커트라인에서 밀리는 직장 근무자들의 입학은 사실상 더 어렵게 되어 결국은 야간강좌 개설 학과라는 야간대학의 후신은 전신인 야간대학의 정통성까지 소멸시켜 경제적 역경을 딛고 교육 기회의 확대를 기약하며 주간 교육 시설을 활용해서 기술과 학문 체계를 접할 기회를 마련해 인재를 확보하려던 2부·야간대학의 교육적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전일 수업제가 철저히 시행되어 주

간강좌가 똑같이 야간에 개설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환경이 결코 두 별의 강좌를 주야에 고루 개설할 정도로 여유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재정적 낭비는 어느 한쪽의 강좌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야간강좌 교학처장이라는 짧은 제임 기간을 통해 내가 얻은 체험적 결론은 첫째로 야간강좌 개설 학과 소속 학생들이 그들의 자각지심과 컴플렉스를 우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입학 당시에 야간강좌라는 불리한 조건에 도전했던 것이고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그들의 원대적 이니시에이션을 치루어 낸 것이다.

둘째로 야간강좌 개설 학과라는 이 과도기적인 교육 제도는 주·야간 통·폐합으로 해소 내지 소멸되는 것이 낫고 그만큼 대학의 입학 정원에 대한 제한은 대학 자율로 혹은 사회적 수요 공급 원칙으로 돌려져야 한다.

세째로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주·야간에 똑같은 강좌가 개설되는 낭비가 없어지고 그 대신 전일 수업제라는 평생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누구라도 직장인이 그들 근무 시간 외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편의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로 야간강좌가 지금처럼 학기당 18학점 8학기 졸업 학적으로 묶이면 주경야독 정신도 빈혈 증세를 일으키기 쉽다. 학기당 학점 수를 줄이고 학기도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등록금 납부에 차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야간강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 식당이나 보건소, 휴게실의 복지 시설, 도서관 활용에 대한 여론이 보다 더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야간대학이라거나 야간강좌 개설 학과 교학처 같은 단위 행정 기관의 독립은 위화감과 차별 의식을 조장하므로 '행정적으로' 주·야간이 통합·일원화 되는 것이 옳다.

마지막으로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돌아가 야간대학 제도의 환원도 고려해 볼 만하다. 실제로 방송통신대학이라든지 개방대학 제도로 야간대학 입학자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해도 그들이 본격적으로 정통적·고전적·立志傳的으로 형실지공을 쌓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면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교육 기회는 성숙한 사회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